

설계 감리제도 개선을 지켜보며



이성엽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감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의원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에 추진하는 입법은 몇 년 전에 지역건축사회 건의로 의원입법이 추진된바 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시간만 끌다 무산된 경험이 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철
저하게 준비하여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가 감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면 건축물의 생산
과정부터 공공성이 전제 되
어야 한다.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가 감
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엄
격한 공사 감리를 통해 부실
을 막고 설계자의 의도가 반
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건
축물의 완성도를 높여 건축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요즈음 건축계는 설계, 감리 분리시행(감리 공영제)에 대한 논
란이 뜨겁다. 특히 일부 건축 관련 단체에서 자체 홈페이지에
대한건축사협회의 설계, 감리 분리 추진이 건축문화 발전에 반
하는 제도라며 반대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욱이 다른 건축
관련 단체와 함께 반대 활동에 적극적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논
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 건축사들 중에도 반대 의견이 있어 더욱 논
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설계, 감리 분리시행에 대한 확연한 입장 차이

그런데 이미 정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과 주택법 등을 근거
로 관급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분리해
서 시행하고 있다.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의 접근이 차단되어 설계자의 설계의도
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나 대규모 건
축물의 경우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설계와 감리
를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여러가지 면에서 열악한 환경과 일부 무자격 건설업자에
의해 부실과 위법 시공의 우려가 많은 소규모 민간공사의 경우
설계자가 감리까지 할 수 있다.

일부 건축사와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하는 것은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
축물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회원 대부분이 민간인의 의뢰를 받아 설계하고 있다. 따라서 건
축주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부 건
설사나 매매나 분양, 임대를 목적으로 집을 짓는 건축주의 경우
설계자의 의도를 100%로 반영하거나 건축주의 요구를 거절하
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오히려 부실시공이나 위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려면 건축물의 생산 과정부터 공공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설
계자가 아닌 건축사가 감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엄격한 공사
감리를 통해 부실을 막고 설계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
도하여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법률이나 제도의 변천 과정에는 단계가 있고, 시대의 상황과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설계와 감리를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건축주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다.

“몇 년 전에 자신의 주택 1채를 지었는데 건축사에게 좋은 집
을 잘 짓게 해달라고 설계 감리비로 5,000만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또 어떤 건축사는 “나는 건축주가 미리 건축비를 정하고
설계를 의뢰하는 집은 설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특히 지방에 있는 건축사들의
현실은 어떤가!

디자인 경쟁이 아니라 무한 가격경쟁으로 치달고 있는 현실
앞에 극히 원론적인 논리로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를
고집한다면 그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건축사 관련단체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
면 설계 수주를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건축사 1인당 설계 건수가 3건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그리고 전국 건축사사무소 80%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보았다. 이러한 현실이 계속 되어 건축사사무소 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건축사 업무 수행이 부실해진다면 그 결과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감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의원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은 몇 년 전에 지
역건축사회 건의로 의원입법이 추진된바 있으나 이런 저런 이
유로 시간만 끌다 무산된 경험이 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가 감
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현행법으로도 꼭 설계자가 감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법적 뒷받침이 명확하지 않아 감리제도의 질서 정착과 공
정위의 감리비 담합에 대한 대응 논리가 부족한 형편이다.

건축은 이제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유지 관
리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광범위한 도시적 차원에서 해석되어
건축물과 도시환경을 입체적으로 통합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건축물은 이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한 나라의 경쟁력의 상
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만큼 우리 사회에서 건축사의 역할
이 커지고 있다. 우리 인류 사회는 원시공동체 사회로부터 시작
하여 자본주의 사회 등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우리 사회의 제도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류에
따라 진화하고 발전해 왔다.

어떤 제도나 법률에 대해 찬반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
도나 법률이 우리의 시대 상황에 부합하고 시대정신이 반영되
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가 건축에 대한 인식이 조
금 더 선진화 되고 건축문화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여 현
재와 같은 논란 없이 건축사의 위상과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시
기가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주제와 엠블럼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대한민국 건축사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바랍니다.

時+文=建築

건축사, 삶을짓다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주제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엠블럼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협찬금 모금운동

건축사회원의 이름으로 성공개최를
위한 협찬금을 보내주세요!

회원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힘이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빛낼 수 있습니다!

-협찬금 납부방법

계좌번호: 신협 131-015-470552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협찬금을 지원하신 모든 회원님들은 홍보책자의 기부자 명단에 수록됩니다.

협찬금 납부 및 약정서 제출 건축사

2012. 8. 9~9. 9 기준

《협찬금 납부》		
씨에이그룹 건축사사무소	김용주	1,000,000원
동원 건축사사무소	장동원	300,000원
간토 건축사사무소	곽영경	200,000원
선택 건축사사무소	김 곤	100,000원
한라 건축사사무소	오방은	100,000원
(주)신하 건축사사무소	김금진	100,000원
원도 건축사사무소	안민순	100,000원
대원 건축사사무소	박환영	100,000원
라운 건축사사무소	최환석	100,000원
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정광열	100,000원
새광주 건축사사무소	전흥현	100,000원
백두 건축사사무소	강연심	100,000원

《약정서 제출》		
(주)이건 종합건축사사무소	양상훈	2,500,000원
(주)이건 종합건축사사무소	윤익상	2,500,000원
(주)이건 종합건축사사무소	정재경	2,500,000원
(주)이건 종합건축사사무소	정재한	2,500,000원
(주)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라승문/김민국	2,000,000원
(주)다인 건축사사무소	이범국	2,000,000원
(주)현대 건축사사무소	조연성	2,000,000원
강남 건축사사무소	강남구	1,000,000원
(주)일우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안길전	1,000,000원
(주)건축사사무소 자경재	정관성	200,000원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KIRA National Convention, 2012 Festival of Korean Architects

10. 25 Tur ~ 26 Fri 본대회 10. 26 Fri
장소_ 김대중컨벤션센터, 홀리데이인 호텔
대상_ 전국 16개 시, 도 건축사회 회원 8,000여명

주최_ 대한건축사협회(KIRA)

주관_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후원_ 국토해양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설단체연합회,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직공원 전망타워 등 설치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올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광주시는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사직공원 전망타워가 지역의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창성, 창의성, 예술성이 뛰어난 건축설계안을 선정코자 진행하였다.

심사위원 : 전남대학교 주석중, 조선대학교 염대봉, 순천대학교 이석배, 목포대학교 최 일, 세운구조 류기표, (주)우석건설 서병대, (주)자구 박찬수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177번지, 총사업비 : 2,000백만원, 설계용역비 : 132,420,000원

- 당선작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조성호 건축사
- 우 수 작 이엘 건축사사무소 이원일 건축사
- 참 여 작 라온 건축사사무소 최환석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이순미 건축사(협의하여 미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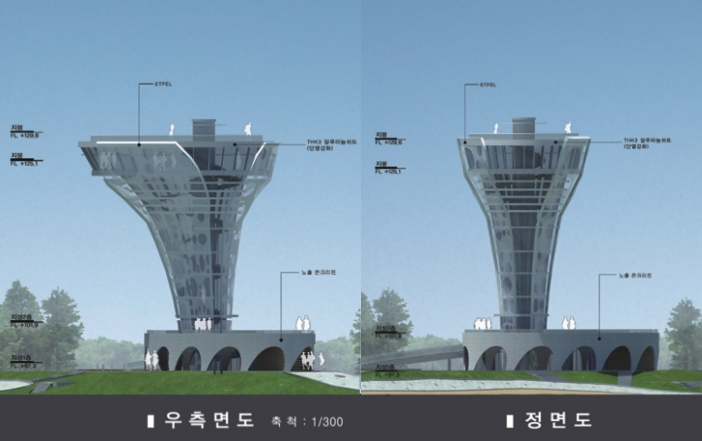
사직공원 전망타워 등 설치사업 건축설계공모



1등작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조성호 건축사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대지면적 : 33,157㎡
연 면 적 : 454.1㎡
건축면적 : 514.47㎡
건 폐 율 : 1.55%
용 적 율 : 1.26%
구 조 :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층 수 : 지하 1층, 지상 3층
최고높이 : 34.70m
외부마감 : 알루미늄쉬트, ETFEL



우수작 이엘 건축사사무소 이원일 건축사

연 면 적 : 484.86㎡
건축면적 : 364.86㎡

층 수 : 지하 1층, 지상 4층
외부마감 : 알루미늄쉬트, 화강석 마감, 로이 북층유리



참여작 라온 건축사사무소 최환석 건축사

연 면 적 : 471.38㎡
건축면적 : 44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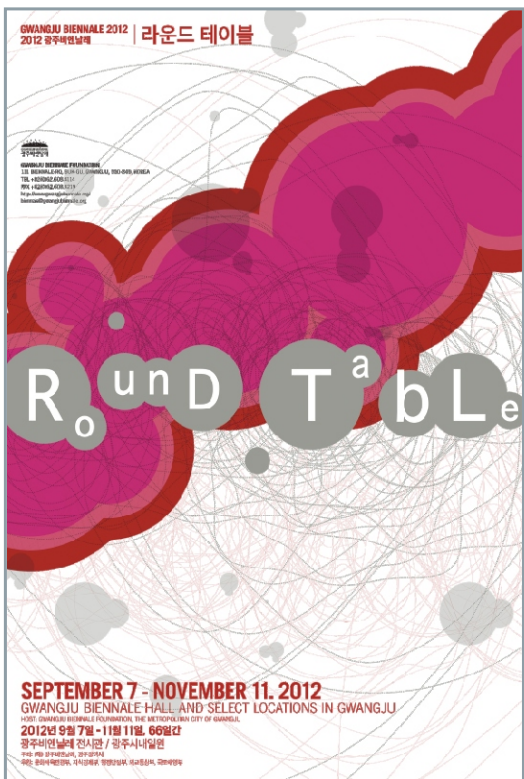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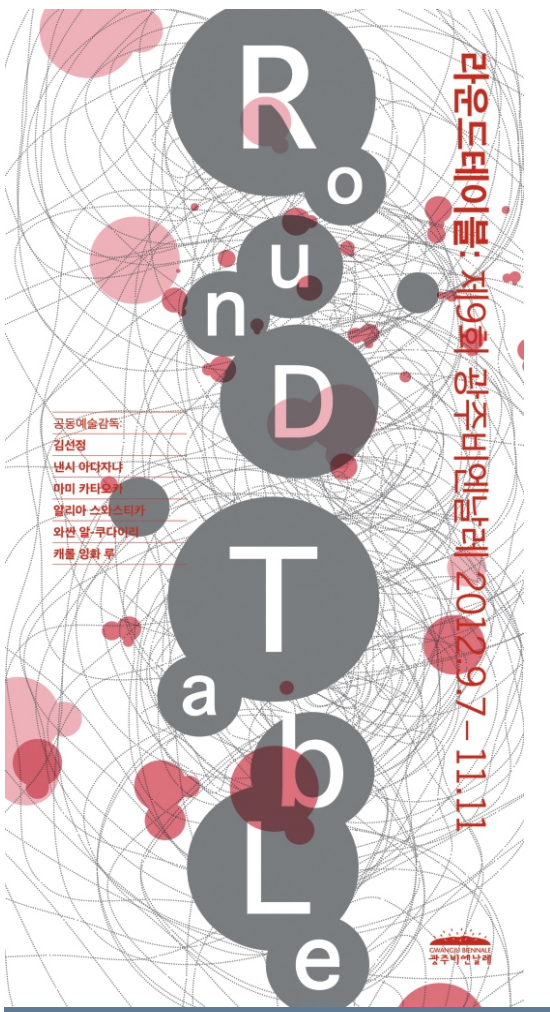
층 수 : 지하 1층, 지상 4층, 전망탑
외부마감 : 콘크리트, 알루미늄복합판넬, THK24 칼라복층유리



제9회 2012 광주비엔날레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66일간의 대장정 시작

– 지난 9월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1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극장, 대인시장 등지에서 전시

–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선정 교수를 비롯한 총 6인의 공동예술감독이 기획한 이번 비엔날레에 전세계 40개국 92작가(팀) 참여, 300여 작품 전시



〈제9회 2012 광주비엔날레 포스터〉

제9회 광주비엔날레 ‘라운드테이블’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라운드테이블’이라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결코 의견을 일치할 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라운드테이블’은 공동예술감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감을 요구하는 열린 형식의 협업으로, 서로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다.

‘라운드테이블’이라는 주제는 단순한 비유 이상의 표현으로, 여섯 명의 공동예술감독들이 여섯 개의 소주제에 대해 대화하고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마주치는 협업 관계를 보여주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라운드테이블은 다양한 안건들을 상정하여 의견을 나누는 정치 회담을 연상시킨다. 또한 여럿이 함께 둘러앉아 나누어 먹는 한국 전통의 둥근 밥상 ‘두리반’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이번 비엔날레에 참여한 예술감독들은 위계적이지 않은 대안적 형태의 조직으로서 이와 같은 집단적 실천을 택하기로 결정했다.

감독들은 다양한 지역들의 역사와 활동을 가로지르며 반향하는 방식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와 다양한 맥락의 소속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도출해낸 결과는 어떤 집단적 정체성이나 공동된 특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견해들이 만들어내는 유동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반영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라운드테이블’의 핵심을 이루는 여섯 개의 소주제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각각의 소주제는 서로 중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의 역할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면서, 하나의 원을 이룬다,

소주제들은 ‘라운드테이블’의 전체적인 뼈대를 구성하면서, 역사를 일련의 가변적 국면들로 재고하게 하고, 소속감과 익명성 간의 긴장에 대해, 그리고 시간성과 공간성, 유동성이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공동예술감독들의 표현에 따르면, “함께 협업하는 각각의 개인으로서 우리는 단 하나의 관점만을 고수할 수 없다. 대신 우리는 협업 과정을 통해 서로가 연결되는 접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큐레이터나 관객이 모든 작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 소주제를 사이에서 하나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큐레이팅을 하는 행위는 통합, 즉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련의 충돌이다. ‘라운드테이블’에는 40개국 출신의 92명 이상의 작가와 작가 그룹, 그리고 일시적으로 구성된 집단들이 참여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된 관계를 형성한다.

이번 비엔날레를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프로젝트로 설정한 바, 45개의 신작 프로젝트와 15개의 레지던시를 포함하여 과정 중심의 설치 작품과 퍼포먼스 작업이 진행된다.

전시는 중외공원 내의 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하여 광주 시내 곳곳에서 펼쳐진다. 개막 이전부터 ‘라운드테이블’을 준비하는 기간과 전시가 열리는 기간 동안 진행되는 ‘워크스테이션’ 및 ‘전자 저널’은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라운드테이블’은 무조건적 협업 방식의 불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전 지구적 문화 생산을 위한 수평적 교환의 획기적 참여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할 것이다.



입장권				
행사용 무료, 관람 시간: 오전 9:00 - 오후 6:00				
구분	종류	매개	현상	적용 범위
당일 1회용	어른	11,000	14,000	· 어른: 만19-64세
	청소년	4,000	6,000	· 청소년: 만13-18세
	어린이	2,000	4,000	· 어린이: 만4-12세(입장료 면제)
단체합의인	어른	9,000	11,000	· 30명이상 단체
	청소년	4,000	5,000	· 중·고등학교생
	어린이	2,000	3,000	· 유치원 초등학생
특별합의인	어른	4,000	4,000	· 1954년 미상사
	청소년	2,000	2,000	· 4급 이하 장애인 및 3급 이상 장애인
	어린이	1,000	1,000	· 보호자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저소득층
행사 전기간 통용	어른	30,000	30,000	· 국가유공자 및 중증 장애인(3급) 본인
	청소년	20,000	20,000	· 단체인격에 인솔자 및 인솔교사(20명당 1인)
	어린이	10,000	10,000	· 단체관람객 유자행사 가이드 또는 버스기사 · 자급 학교(고등학교 이하) 단체관람객 · 기호생활보장수급자(중증장애인 제외)
무료입장				

6인의 공동예술감독 소개(배경: 6개의 전시 소주제)



김선정
Kim Sun Jung / 1965년생 / 한국

주요활동
2010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전시감독
2009~2010
“Your Bright Future : 한국현대미술작가12인전”, LA미술관, 휴스턴미술관 순회전
2006~2009
“Platform Seoul” 전시기획, 서울역사등
2005 제5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2004 서울시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

김선정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큐레이터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다. 1993년부터 2004년 사이 서울 아트선제센터의 수석 큐레이터로 활동했다. 200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를 역임했으며, 전시기획 회사인 사무소(SAMUSO: Space for Contemporary Art)를 설립했다. 사무소 기획의 연례 미술 행사인 ‘플랫폼 서울’을 창설했다. ‘플랫폼 서울’의 전시로 《Somewhere in Time》(2006), 《Tomorrow》(2007), 《I have nothing to say and I am saying it》(2008), 《Platform in Kimusa: Void of Memory》(2009), 《Projected Image》(2010)가 있다. 제6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미디어시티 서울 2010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학력: Cranbrook Academy of Art(MFA) /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서양학과



캐롤 잉화루
Carol Yinghua Lu / 1977년생 / 중국

주요활동
2008 “Accidental Conceptualism”, 베이징 조이아트
2007 “Foreign Objects”, 쿤스트할레 빈
2006 “The Temperament of Detail”, 런던 레드맨션재단
2005-2007
스웨덴 룬트대학교 말뫼아트아카데미 아시아미술자료실 중국연구원

캐롤 잉화루는 베이징 기반의 미술평론가이자 큐레이터이다. 매거진 《Frieze》의 객원편집위원이며, 《컨템포러리 아트 & 인베스트먼트》의 공동설립자이자 공동편집인이다. 이-플렉스 저널, 《엑시비셔니스트》, 《이슈》, 《테이트》 등을 비롯한 국제 미술저널과 매거진에 기고하며, 다양한 전시 도록, 책, 출판물, 비평집 등에 비평을 실고 있다. 2005-2007년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의 중국 연구원을 역임했다. 2009-2010년 투데이 미술관의 프로젝트 스페이스인 ‘수트케이트 아트 프로젝트 스페이스’의 설립자이자 아트디렉터로 재직했다.

▶학력: 광저우 중산대학 영문학과, 스웨덴 룬트대학교 말뫼아트아카데미 석사



와싼 알-쿠다이라
Wassan Al-Khudhairi / 1980년생 / 이라크

주요활동
2010-11 “Sajil : 현대미술의 1세기” (Nada Shabout and Deena Chalabi와 공동큐레이터), 아랍현대미술관 (Mathaf), 도하
2011 아랍현대미술관 주최 아트두바이 제5회 글로벌 아트포럼 발제
뉴욕 브루클린 뮤지엄 보조큐레이터 역임

와싼 알-쿠다이라는 아랍 근현대미술 전문 큐레이터이다. 아랍근대미술관 초대 관장으로서 미술관의 새로운 방향성과 정책 확립, 소장품 구입과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아랍근대미술관 재직 기간 동안 《사람: 차이 구어치양》(2011)을 기획했고, 《사질: 근대미술의 한 세기》(2010)를 공동 기획했다. 이라크 출신으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영국, 미국 등지에 거주하며 애틀랜타의 하이 뮤지엄 오브 아트, 뉴욕의 브룩클린 미술관 등에서 일하기도 했다.

▶학력: 조지아 주립대학 미술사학과 졸업, 런던대학교 이슬람 아트 및 건축 석사



마미 카타오카
Mami Kataoka / 1965년생 / 일본

주요활동
2010 “Sensing Nature: Perception of Nature in Japan”, 동경 모리미술관
2009 “Ujino and the Rotators”,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 “Ai Weiwei : According to What?”, 동경 모리미술관
2008 “Art Is For The Spirit”, 동경 모리미술관
2007 “Beautiful New World : Contemporary Visual Culture from Japan” 공동기획, 베이징 광저우

마미 카타오카는 2003년부터 모리미술관 수석 큐레이터로 재직하며 전시기획과 저술을 병행하고 있다. 2007-2009년 런던 헤이워드갤러리의 첫 번째 국제큐레이터를 역임했다. 모리미술관의 주요 전시기획으로는 《아이 웨이웨이: 무슨 근거로?》(2009, 2012년부터 미국 순회전), 이불: 나로부터, 오직 그대에게》(2012) 등이 있다. 최근 전시로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인 아트 뮤지엄의 《아시아의 유령: 과거를 깨우는 현대》(2010)를 기획했다.



낸시 아다자냐
Nancy adajania / 1971년생 / 인도

주요활동
2009 “어딘가의 풍경”, Mirchandani Steinruecke 갤러리, 뭄바이
2007 “예술의 급변 : 새로운 아시아의 물결”, ZKM, 칼슈에
2006 “아바타들 : 조각의 투사”, NCPA/길드아트 갤러리, 뭄바이
2004 “Zoom : 현대 인도의 예술”, Culturgest 미술관, 리스본
2000~2002 “Art India” 편집장

낸시 아다자냐는 인도 뭄베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이론가이자 독립큐레이터이다. 초문화적 예술 활동, 예술과 생산적 정치의 관계를 주제로 많은 글을 쓰며 강의를 해오고 있다.(카셀 도큐멘타 11; 칼스루헤 ZKM; 베를린 트렌스미디어알레, 비엔나 퀸슬러하우스, 위트레히트 BAK 등) 매거진 『아트 인디아』의 편집장을 역임했고, 다수의 새로운 이론적 모델을 제시해오면서 비평집, 미술 저널 및 도록 등에 글들을 기고했다. 실과 굽타의 작품집(2010, 프레스텔)을 편집했으며, <다이얼로그 시리즈> (2011, 파블러 프라카산 / b&g 재단)를 공동 저술했다. 현재 위트레히트의 현대미술센터 BAK의 연구원이다.

▶학력: 앨핀스톤대학 정치학과, 인도 영상&TV대학(FTII)수학



알리아 스와스티카
Alia Swastika / 1980년생 / 인도네시아

주요활동
2010 “Sensing Nature: Perception of Nature in Japan”, 동경 모리미술관
2009 “Ujino and the Rotators”,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 “Ai Weiwei : According to What?”, 동경 모리미술관
2008 “Art Is For The Spirit”, 동경 모리미술관
2007 “Beautiful New World : Contemporary Visual Culture from Japan” 공동기획, 베이징 광저우

알리아 스와스티카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큐레이터이자 미술평론가이다. 2002-2004년 인도네시아의 저명한 아트스페이스 세메티 아트 하우스의 아트매니저와 『SURAT』의 공동편집인을 역임했다. 2008년 이후 자카르타 아크 갤러리의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아시아 유럽 파운데이션(2005년 베를린), 아시아문화협회(2006년 뉴욕), 아트 허브(2007년 상하이), 싱가포르 국립미술관(2010년 싱가포르)로부터 연구 지원을 받았다. 《과거, 그 잊혀진 시간》(2007-2008, 암스테르담, 자카르타, 세마랑, 상하이, 싱가포르)과 《마니페스토: 7인의 인도네시아 작가들의 새로운 미학》(2010, 싱가포르 현대미술관) 및 에코 누그로호, 틴틴 울리아, 비모 암발라 바양, 줌랫 쿠스비다난토의 개인전을 기획했다. 제11회 족자카르타 비엔날레와 2012 아트 두바이의 인도네시아 미술에 대한 마커 프로그램 큐레이터를 역임했다.

▶학력: 족자카르타 대학 졸업, 커뮤니케이션 전공

2012 광주비엔날레 일부 전시작품



▲ 탁본프로젝트(Rubbing Project) / 서도호



▲ 자아관측: 버전 1.3, 2012 / 사라 나이트만스



▲ 자동건축 작업실: 비효율적인 땀 뻘 워크숍: 극장 뒤 무료 상담 / 아브라함 크루스비에가스



▲ 젊은이의 양지, 2012 / 조현택



▲ 레벨 파이프, 1997 / 크리스마커

서양건축 : 영국 런던의 건축문화_ 1부



김경원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kyongwon@Chosun.ac.kr

» John Nash(1752-1835)의 런던

1부 : John Nash(1752-1835)의 런던 - 2012년 9월
2부 : 2012년 10월 예정
3부 : 2012년 11월 예정

선진 서양건축문화를 배우고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서양건축'지면을 개설하였으며, 이번 호(2012년 9월호)부터 35호(2012년 11월호)까지 영국 런던에서 수학한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김경원 교수가 '영국 런던의 건축문화'를 주제로 3회 연재한다.

런던을 뒤로하고 돌아온 지 5달, 조금 서두른 귀국으로 인해 그 곳의 생활을 매듭짓지 못한 내게 얼마 전 런던 올림픽은 좋은 선물이었다. TV를 통해 언뜻언뜻 보여 지는 런던 거리의 모습들이 회상, 그리움 그리고 여러 기억들을 내게 다시 한 번 되살려 주었다. 특히 사이클과 마라톤 경기 동안 보였던 런던 시가지의 모습들은 내게 그리 짧지만은 않았던 시간동안의 많은 기억들과 추억들의 장소였기에 맘 흘리는 선수들보다는 그들 뒤로 보이는 배경에 눈이 더 갔다.

지구인의 축제를 대비하기 위한 그 많고 시끌벅적했던 공사로 인해, 번잡한 시내를 불평하며 출퇴근을 하였던 게 이제 채 반 년도 되지 않았지만, 이제 올림픽이 언제였으나 생각할 만큼 오랜 전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내 기억 속에서 런던이 더 희미해지기 전에 시내 건축물을 중심으로 내용을 채워 볼까 한다.

〈프롤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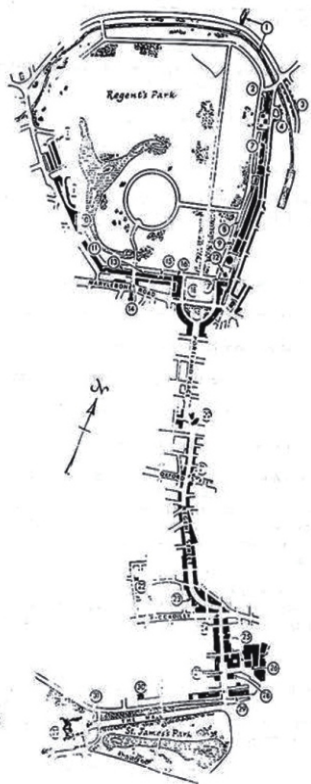


Fig. 12. Nash's London Developments, from 1812: See pp. 66-81.
1. The Regent's Canal
2. Gloucester Gate
3. Park Village East
4. Park Village West
5. Hanover and Kent Terraces
6. Sussex Place
7. Cumberland Terrace
8. Chester Terrace
9. Cambridge Terrace
10. Clarence Terrace
11. Cornwall Terrace
12. Somerset House
13. York Terrace
14. York Gate
15. Doric Villa
16. Ulster Terrace
17. St Andrew's Place
18. Park Square
19. Park Crescent
20. All Souls' Church
21. Oxford Circus
22. 29, Dover Street
23. The Quadrant
24. Piccadilly Circus
25. Theatre Royal and Suffolk Place
26. Suffolk Street
27. Waterloo Place
28. United Service Club
29. Carlton House Terrace
30. Clarence House
31. The Marble Arch
32. Buckingham Palace
Nash also planned the area to the east of the Suffolk Street developments: i.e. Trafalgar Square and improvements to the Strand.

사진1) Detail plan of Regent Street
이미지출처 http://projects.ecks.org/home/units/unit2_docs/RegentStreet.gif

세계적인 건축인들이 디자인한 런던 시내

런던시내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세인트 폴 성당에서부터 최근의 샤드(the Shard)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건축물을 접할 수 있다.

Christopher Wren 부터 Norman Foster 까지 세계적인 건축인들이 시내의 주요건물들을 디자인해 왔으며 이 다양성과 복합성이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키며 그 고유의 특색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하다.

런던을 처음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가게 되는 곳이 피카딜리 서커스 지하철역과 옥스퍼드 서커스 지하철역 그리고 그를 잇는 Regent Street 이다. 시선을 사로잡는 눈높이의 많은 화려한 상점들을 아래로 두고, 살짝 고개를 들어 위를 보면 우리 주변의 거리와는 사뭇 다른 전통과 역사가 느껴지는 그 웅장함과 고풍스러운 건물들로 인해 왜 이곳이 런던인지를 느낄 수 있다.

물론 각자의 느낌과 생각은 다르겠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도시들과 비교를 해 보아도 런던시가 주는 느낌은 왠지 흔한 말로 '내가 뛰이다' 라는 기운을 차분히 내뿜는 듯하다.

파리의 Baron Haussmann의 존재감처럼 런던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건축인이 있다.

19세기 주택건축의 아름다움과 특별함을 더욱 각인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John Nash(1752-1835)인데, 그가 변형시킨 런던의 모습을 한 번 되돌아보는 측면에서, 그의 디자인을 따라 남쪽의 St. James's Park에서 부터 Regent Street를 따라 북쪽의 Regent's Park까지 Nash의 작품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이 글을 작성하였다.(사진1)

John Nash의 계획과 설계

런던에서 태어난 Nash는 1809년부터 26년까지 St. James's Park, Regent Street, Regent's Park 그리고 그 주변의 길과 건물들을 재정비, 계획하고 설계하였으며, 이로 인해 Regency 기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인중의 한사람이 되었다.

첫 번째로 St. James's 공원은 한 470년 전만해도 농장, 목재 그리고 여성 환자를 위한 병원지역으로 쓰였으며 1536년에는 헨리 8세의 뜻에 따라 근처 사슴사냥공원을 위한 숙소가 들어섰고 그 숙소는 후에 St. James's Palace 가 되었다.(사진2)

이후 공원은 차츰 차츰 변해 오다가 1827년에 Nash의 디자인에 의해 현재의 모습으로 재구성 되었다. 자연주의 형식을 바탕으로 직선의 길은 구불거리리는 길로 바뀌고, 전통적인 화단은 관목들로 대체되며 the Mall도 개조되었으며 Buckingham House도 증축되었다. 공원을 지나 북쪽으로 걸으면 Regent Street에 다다르게 된다.(사진3)

Regent Street를 채우고 있는 지금 현재의 건물들은 Nash의 작품들이 아니고 또한 그 주변의 모든 건물을 그가 디자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배치는 Nash의 마스터플랜으로써 변하는 구역과 상업시설을 수용하기위해 1895-1927년까지 재건축된 건물들로 원래의 건축물들이 대체 된 것이다.

Nash의 Regent Street 계획의 큰 특징으로는 불규칙적인 길을 따라 디자인 하며 웅장한 facade를 창출한 것이고 Picturesque를 그대로 표현하고 보여주는 이 길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Nash가 디자인한 단 하나뿐인 교회 그리고 Regent Street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의 건물인 All Souls Church에 도착하게 된다.

(사진4)

마지막으로 Portland Place 북쪽 끝으로 가면 Regent's 공원에 접하는 Park Crescent에 이르게 된다.(사진5)

1811년부터 Nash는 Regent's 공원계획에 그의 비전을 발전시켰는데, Park Crescent는 Stucco로 마무리된 우아한 반원형 모양의 테라스 하우스이고 지금은 고가의 아파트로 개조되었다.

1806년에 시작되었지만 완공은 1819년부터 21년에 되었으며 남쪽의 반원의 테라스가 북쪽의 Regent's 공원의 인상적인 입구가 되는 것이 원래 Nash의 디자인이었으나, 재정적인 이유로 남쪽의 반만 완공되었고 북쪽의 Crescent 대신 Park Square 가 그 자리를 채웠다.

런던은 많은 건축인의 전통 건축물로 채워져 있지만, 그 중 19세기 Regency period동안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John Nash의 작품들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런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Nash의 디자인은 즉흥적이며 대담한 마스터플랜으로 John Wood의 영국적 Bath 건축 스타일과 Ledoux의 프랑스풍 스타일을 잘 조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에 대해서 장인정신에 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의 건축물들은 Picturesque적인 공간과 절대적인 조화를 이루고 더욱 돋보이게 하여 최적의 아름다운 시각적 효과를 이루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아가 Stucco를 사용한 주택은 새로운 중상층의 교외 주택스타일로 발전되었으며 19세기 영국 주택건축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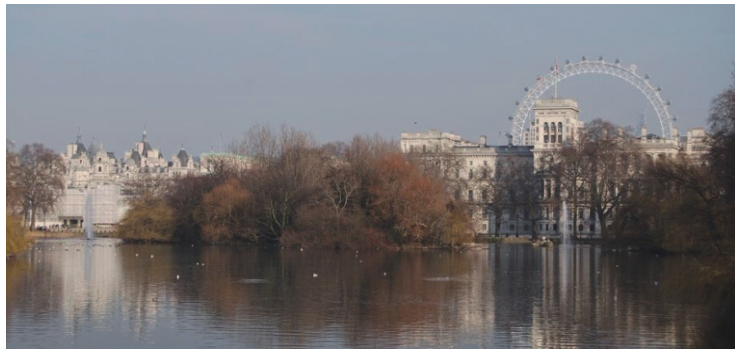


사진2: St.James's 공원 이미지출처: 저자



사진3: Regent Street 이미지출처: 저자



사진4: All Souls Church, Langham Place
이미지출처: http://en.wikipedia.org/wiki/File:All_Souls_Church.jpg



사진5: Park Crescent
이미지출처: <http://en.urbarama.com/project/park-crescent-regent-s-park-london>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건물이 건축이 되고... 건축이 건물이 되다_양병범 건축사

‘건축(建築)’이라는 친구를 만나 언제나 흡족하게 웃어주기를 바라지만 아직은 웃는 녀석이 적다는 그는 현재도 웃음을 머금을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건축이라는 벼를 만나 하나하나 친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의 건축은 아직 진행형이다.

양병범건축사는 지역건축사회에서 명성을 가진 건축사이다. 하지만 그와의 만남은 건축이라는 친구를 벅삼아 인생의 참맛을 만들어가는 감성적인 친구가 아닌가 싶다.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건축을 엿보는 것은 어떨까...

건축사로서 걸어온 길... (건물이 건축이 되고... 건축이 건물이 되다.)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제게 있어서 건축은 단지 “사람이 생활 하는 곳” 이었습니다. 주택, 학교건물, 병원건물, 상가건물...이렇듯 물리적 이고 일반적인 의미 이상은 아니었죠.

전남대학교에 입학하여 건축학 전공과 우람이라는 고건축 스터디그룹과 천득염 교수님의 가르침 등을 통해서 건물이 건축이 되어 제게 다가오게 됨을 느꼈습니다.

이렇듯 작은 깨달음과 호기심으로 시작된 건축에 대한 관심은 차츰 건축이란 무엇이고 공간은 무엇이며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자연과 공존하며 환경에 적응 해나가는지에 대한 앞의 갈구로 이어졌고, 사람의 행위와 인문학적 요소들을 이해한 건축과 논리적으로 예술을 품에 안은 건축을 느끼면서 건축과 그를 아우르는 요소들의 관계에 대해 자연스럽게 사유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졸업 후 서울에서의 10여년의 아뜰리에 사무소에서의 설계경험, 귀향과 함께 97년 광주에서 사무소를 개설한 일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뒤를 돌아보았을 때 건축을 친구처럼 생각하는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건축을 통하여 건물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 건축이란 무엇이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건축을 임하는지 궁금합니다.

감히 건축을 논하고 건축적 철학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제게 있어 건축은 즐거움을 주는 친구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다가서며 가까이 하고 싶은 멋진 친구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기대하기도 합니다.

다가서다 보면 언젠가는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제게 흡족하게 웃어주는 녀석들이 적네요.

건축사로서의 자부심이 있다면.

건축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 사람 앞에서 “○○○건축사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축설계가 사회와 문화를 물어내 보이고 그 가치를 표현하며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한 작품 한 작품에 온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 있기에 자긍심을 가진 나의 소개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우리 회원 모두도 현실의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긍심을 갖고 “○○○건축사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억에 남는 작품...

20여 년 동안 건축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작업에 참여했는데요.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광주 중심사 초입의 100여 평 즈음 되는 작은 레스토랑으로 제가 광주에 와서 처음 벅 삼은 작품입니다. 물론 그 동안의 모든 작품들이 소중하고 그 의미 정도의 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건축주의 삶을 담아낼 공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시간 나누었던 대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스케치와 모형을 생각하면 아직도 지금이 웃음

이 납니다. 가끔 이 친구를 보러 다녀오곤 하는데요. 지친 일상에 사그라지던 열정도 체력도 이 친구만 보면 다시 충전이 되는 듯합니다.

사회환원과 재능기부...

그 동안의 제 자신을 반성하게 하는 질문이네요. 건축 전문가로서 보다 나은 공동의 삶을 위한 봉사가 필요하다 생각하면서도 많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 해 아쉬움이 큼니다.

현재는 전남대학교에서 후학양성과 무등산보호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은 아니지만 일에 깊이를 두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꾸준히 사회환원과 재능기부에 힘쓰시는 회원님들의 소식을 들을 때면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지금보다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봉사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배건축사에게 바라는점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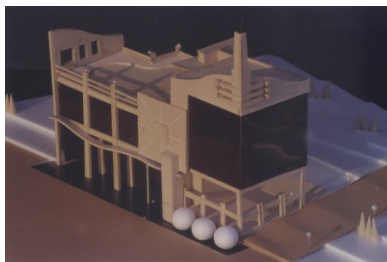
건축설계 작업을 통하여 건설되어지는 건축물을 보면 뿌듯함만 있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론 안타까움에 화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건축사라면 누구나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만 저희 작품이 건설과정에서 저희 의도와 상관없이 변화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설계자로서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는 책임이 있습니다만 수많은 주인(?)들로 인하여 간섭되어져 본질을 외면한 채 변질되어 결국은 서로 웃지 못하고 대면 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희는 감리에 설계자가 필연적으로 참여하여 설계자의 의도가 존중되어지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감리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지며 꼭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인터뷰 제안을 받고 지난시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귀향한 후 배에게 또 다른 인생 시작의 장을 열어주시고 아낌없이 도와주신 청도건설 이승룡 선배님... 항상 주변을 지켜준 친구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따라 준 가족들... 20여년간 건축사로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주변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주)유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파트너인 오금열, 김종원 건축사님과 함께하는 사무소 스텝 식구들...

건축과 벅 삼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 힘과 자량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길이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해봅니다. 언제나 친구처럼 맑게 웃는 모습으로 저희가 맺어갈 새로운 많은 친구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회원님과 함께 말이죠.



취재·정리 : 박종호건축사기자
K21024@chol.com

◀광주에 와서 처음으로 설계한 작품
(광주 중심사 초입의 레스토랑)



전남/(주)유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양병범 건축사



남구다목적체육관



광주지역본부 시험생산시설



CGI센터



영광 문화예술회관



2012 제8회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FOOTBALL CLUB

일 정_ 2012. 09. 14(금)~15(토)

장 소_ 목포국제축구센터

개회식_ 14일 12:00

주최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 주관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 후원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회, 목포시

새로 보는 전남의 건축문화_5부



김 지 민 교수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장
jm7192@paran.com

» “—” 형 재실, 외로운 “정려각”

- 1부 : 곳간문화, “ㄷ” 형 전통 가옥 - 2012년 5월
2부 : 탐진강변의 정자, 향교·서원의 “전당후재” 형 - 2012년 6월
3부 : 사라진 도서의 전통민가 행복마을과 살림집 신한옥 - 2012년 7월
4부 : 하의도의 근대한옥, 목포의 석조건축 - 2012년 8월
5부 : “—” 형 재실, 외로운 “정려각” - 2012년 9월

지역건축문화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전남지역 전통건축 분야 전문가인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지민 교수의 원고를 5회 연재한다.

전남지역 재실은 우선 건물구성이 단순하고 개방적이다. 또한 영남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누각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는 이 지역 향교건축에서도 마찬가지다. 배치 형식을 보면 ‘—’ 형 본체가 안쪽에 있고, 그 앞쪽에 문간채가 같은 축선상에 있는 단순한 구조이다.

< “—” 자형재실 부분중 >

정려 또는 정문(旌門)은 효자나 충신, 열녀 등의 행적을 높이 기르기 위해(표창) 그들이 사는 집앞에 문을 세우거나 마을 입구에 작은 건물(정각)을 세워 기념하는 것을 말한다. 그곳에는 표창 받은 사람의 직함과 성명이 새겨진 현판을 걸어 놓는다.

< 외로운 “정려각” 부분중 >

1. “—” 자형 재실

재실(齋室)은 조선 500년의 유교문화가 낳은 한국 유교건축의 한 유형이다. 재실의 건립은 조상숭배 사상에 그 근원이 있다. 조상숭배란 주로 가족이나 씨족이 조상신을 존중하여 제사지내는 풍속인데 이러한 의식은 조선의 사대부는 물론 일반에 까지 널리 확대되어 효의 근간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제례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다례(茶禮), 기제(忌祭), 시제(時祭)가 있다. 다례는 명절 등에 성묘와 함께 간단히 지내는 제사이고, 기제는 사대봉사(四代奉祀)라 하여 4대조(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까지 돌아가신 날에 집안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시제란 해마다 음력 10월에 5대조 이상의 산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다른 말로 시사(時祀) 또는 시향(時享)이라고도 한다. 즉 문중에서 합동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시제를 지내려면 제수를 장만하고, 제례절차를 논의하고, 멀리서 온 참제인의 숙박 등을 위한 건축적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재실(齋室)이다. 재실은 지방에 따라 재각(齋閣)이나 재사(齋舍) 등으로도 불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중의 모임이나 서재 같은 강학 기능도 함께한 곳도 있다.

문중 재실의 건립은 조선 후기(특히 17세기 중반 이후)에 와서 일반화되는 역사적 산물로 주목되고 있다. 이는 17~18세기에 일반화된 서원과 사우의 건립을 통해 향촌사회에서 가문의 지위를 높이며, 또한 당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지역의 기반을 견고히 하려는 경향과 관련이 깊다.

건축규모는 문중의 경제력, 결집력, 제례관습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재실의 기능이 제수 장만, 문중회의, 참제인의 유숙, 묘역관리 등 복합적인 만큼 건축 공간 또한 다양성을 갖는다. 곧 머물 수 있는 방과 부엌이 있고 아울러 모임의 장소, 창고 등도 있다. 어쩌면 재실은 그 지역의 환경에 오래 적응해 온 다소 규모가 큰 살림집과 같은 공간 구조로 정착했다.

전남지역 재실은 우선 건물구성이 단순하고 개방적이다. 또한 영남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누각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는 이 지역 향교건축에서도 마찬가지다. 배치 형식을 보면 ‘—’ 형 본체가 안쪽에 있고, 그 앞쪽에 문간채가 같은 축선상에 있는 단순한 구조이다. 본체는 향교의 명륜당과 같은 소위 ‘강당형’ 건축으로 일관된다. 즉 중앙으로 대청을 드리고 그 양측으로 방 두 개가 구성되는 ‘—자형’의 단순한 구조이며 규모는 정면 5칸이 제일 많다.

본체 전면으로는 솟을대문(또는 평대문)이 세워지고 그 양측으로는 주로 참제인의 유숙을 위한 방이 연속으로 드러진다. 호남지방에서 가장 돋보이는 재실은 해남윤씨 문중의 강진 영모당과 추원당이다. 17세기에 건립된 거의 유사한 규모와 같은 배치형식으로 된 두 재실은 ‘—’ 형 몸체에 앞쪽에 ‘⊥’ 형 아래채가 있는 구조로 규모와 짜임새 면에서 이 지역 제일의 재실이다.

현재 재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조선시대에 건립된 재실도 많지만 오히려 20세기 들어 더 많이 건립된 곳도 있다. 가령 전남 무안군의 경우는 총 73개의 재실 중 6개만이 19세기 이전에 건립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1911년 이후에 건립되었다. 심지어는 1971년 이후에 지어진 것도 17개나 된다. 21세기에도 재실의 위력은 실로 대단하다.

2. 외로운 “정려각”

학교와 서원 등은 조선 500년의 유교문화가 낳은 한국의 대표적 유교 건축이다. 이들은 역사성과 함께 건축적 구성도 풍부하여 그간 여러 방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 왔으나 정려(旌閭)는 규모도 작고 건물의 내용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세상의 관심 밖에 외롭게 자리하고 있다.

정려 또는 정문(旌門)은 효자나 충신, 열녀 등의 행적을 높이 기르기 위해(표창) 그들이 사는 집앞에 문을 세우거나 마을 입구에 작은 건물(정각)을 세워 기념하는 것을 말한다. 그곳에는 표창 받은 사람의 직함과 성명이 새겨진 현판을 걸어 놓는다.

정려 제도는 고려시대에도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역시 조선시대부터이다. 조선의 역대 왕들은 대부분 치국의 도리를 유교적 윤리관에 바탕을 두었고 아울러 사회교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펼쳐나갔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정려 정책이다. 특히 선조 이후로는 임진왜란 등 각종 재난시에 순절한 충신, 열사들이 많이 정려되었고, 또한 왜군의 만행에 정절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많은 절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정려되었다.

정려는 비록 개인에 대한 포상이지만 그의 성격은 문종이나 마을의 경사로 여겨졌기에 정각의 위치는 대개 잘 보이는 마을 입구의 길목에 위치했다. 한편 마을 입구에 각의 형태로 존재하는 정려와는 달리 정려 받은 후손의 살림집 대문간 앞에 정문(旌門)을 세워 기념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가옥의 대문간채 중앙에 세운 경우도 전국적으로 여러 가옥에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남 함양의 정여창 가옥이다.

정각의 규모는 보통 정려자가 1인인 경우가 많아 명정 현판 1개 정도를 걸어들 수 있는 정면 1칸, 측면 1칸 크기가 많다. 그러나 3효자, 7충 등 여러 명의 장려자가 있을 경우 규모가 커져 정면이 3칸, 5칸, 7칸 등으로 늘어난다. 정려각 4면은 보통 명정 현판이 잘 보이도록 벽체를 두지 않고 홍살만을 꽂아 둔다. 건축양식은 주로 장식적으로 화려하게 초각이 있는 익공식이 많이 채택되었다.

조선시대가 끝나고 20세기에 들어와서도 효자와 열녀 등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어 주로 문중 중심으로 정려가 내려졌다. 이 당시 정려는 각 없이 비만 세운 경우가 많다.

최근 우리사회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다. 우리 선조들이 세웠던 작은 정각이 주는 의미를 다시금 되돌아 볼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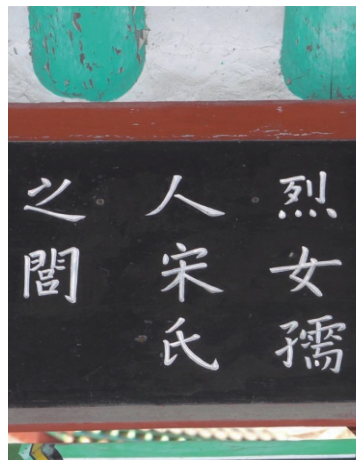
화순 창녕조씨 쌍충각



쌍충각 처마 밑



영광 고흥류씨 정려각



열녀 현판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지역건축문화’ 원고를 연재해 주신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지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진 해남 윤씨 재실 (영모당)



영모당 문간채와 안마당

농어촌 재능기부 선도자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윤충열 교수와의 만남

몇 개월 전,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공익광고에 나왔다. 3명의 인사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농촌을 위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재능기부’ 캠페인이었는데 소설가 이외수, 지휘자 금난새, 그리고 윤충열 교수였다. 윤충열 교수는 제자들과 함께 무료로 농어촌 집 고쳐주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자신이 가진 건축 분야의 재능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이러한 활동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다. 이러한 화제의 인물 윤충열 교수를 지난 9월 3일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그의 연구실에서 만나 보았다.

학자로서 걸어온 길...

대학에 다닐 때 학자가 되리라는 생각은 거의 없었던 듯하다. 졸업이 임박했을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양대학교 전경배 교수님께서 대학원 진학을 권유하셨던 것이 학자로서의 길로 접어든 계기가 된 듯하다.

학자로서의 삶은 남보다 특별히 뛰어나거나 두드러짐은 없었는데 평범함 속에서 나름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 노력은 했었던 것 같다. 돌이켜 보건데 연고라고는 무엇 하나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직선 학장에 도전해 당선되었던 것을 보면 지나온 삶이 그리 모나지 않은 듯 하며, 대학 부설연구소 소장와 학회 회장 등을 거친 것은 학자로서 교육이나 연구이외의 또 다른 경험을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된 듯하다.

이제 교육자의 길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결실들을 사회로 환원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연구업적 또는 관심분야

남보다 뛰어난 연구업적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평범한 학자로서 교육과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으려 노력한 정도이다.

그동안 관심분야로는 어린이 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농촌지역 시설 등이다.

최근에는 농촌지역 소외계층의 주거문제와 노인복지문제 그리고 재능 나눔을 통한 사회봉사활동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학계의 비전 또는 발전방향

최근 건축학계의 4년제, 5년제의 양립문제, 또한 각각의 공학인 증문제 등으로 혼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노력과 경험을 토대로 한 건축학자로서의 철학

건축학자이기 이전에 교육자로서의 철학이랄까? 교육자로서의 덕목을 말해보고 싶다. 교육자로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한 애정이며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가짐이라 생각되어진다. 교수의 학생에 대한 애정과 학생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교육이 완성되어진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요즘 세태로 볼 때 학생을 무작정 사랑한다는 것도 학생들이 존경심을 이끌어 낸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현실이기는 하나 교육자로서 어려운 일이라 포기하거나 게을리 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처음교육을 시작하려는 학자들 중에는 많이 배웠다는 우월감과 교수가 되었다는 자긍심 때문에 학생들과의 교감에 실패하고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다.

교육자로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전달하고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하느냐는 교육자로서 최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교수의 제자사랑과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전제되지

않는 교육은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교육철학이라고나 할까?

가장 존경하는 건축 관련 인물

나의 지도교수로서 가장 오랜 시간동안 같이 생활했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고 전경배 교수님에게서는 인간으로서의 도리, 인간관계 형성 등에 관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러나 교육자로서, 건축인으로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꼽는다면 당연히 한양대학교 교수이셨던 고 박학재 교수님이 확실하다.

교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나 소통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30여년간의 교직생활을 통해 선생님의 그 모든 자세를 배우고 실천하려 노력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나 학문과 교육 이외의 세속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듯 학자로서 교육과 저술활동에 매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건축인 또는 제자들에게 당부 한마디

다양한 계층의 전공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건축인들은 무언가 불만에 차있고 고집스러움이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건축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얻으려 무리수를 두지 말자고 부탁드리고 싶다.

사회가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에 화내고 분노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현실점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 젊은 건축인인 제자들에게 수업시간에 항상 당부하는 말이 있다.

하루하루가 모여 일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알차게 보낸 하루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반드시 오늘하루를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또다시 내일을 계획하여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농촌건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6년 전부터 농어촌 집고쳐주기 재능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윤충열 교수는 정년 이후에도 사회봉사 활동들과 농촌주거문제에 관한 연구 등을 제자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고 한다. 이 사회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이자 전문가로서 그리고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참교육자로서의 면모가 그를 더 빛나보이게 하는 이유인 것 같다.

취재 · 정리 : 강동영, 양우현 건축사기자, 광승국 전담기자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윤충열 교수

- 〈학력〉
1971. 02 : 서울고등학교 졸업
1978. 02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1989. 02 :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공학박사)
- 〈주요경력〉
2002~2004 :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 회장
2005~2007 :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2009~2010 : 한국농촌건축학회 회장
1988~현재 : 전북 익산시 건축위원회 위원
2001~현재 : 전북 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006~현재 : 전북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2007~현재 : 전북 부안군 건축위원회 위원
2010~현재 : 전북 익산시 경관디자인위원회 위원
2010~현재 : 전북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2011~현재 : 다속동지복지재단 이사
2011~현재 : 한국농촌건축학회 대학생 봉사단 단장
2012~현재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위원
- 〈저서〉
1982. 09 : 건축계획론(산업도서출판공사)
1992. 11 : 건축관계법규 문제연구(세진사)
1995. 06 : 건축사대비 건축관계법규도서출판 세진사)
1999. 12 : 건축텍스트북(대한건축학회 건축텍스트북 편찬위원회)
- 〈논문〉
2011. 5. 13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주거공간 이용실태 및 개선요구에 관한 연구 / 2011년 한국농촌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2004. 4. 23
유스호스텔의 생활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
2003. 5. 30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공간구성과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 한국농촌건축학회
2003. 4. 01
도시공원의 이용특성 및 시설요구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 회장 재임중 개최한 워크숍에서



▲농촌 봉사활동에서 아이들과 함께 ...

광고 및 공동신청

건축문화

사랑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 광고 : 1,500,000원
- 16면 외전면 광고 : 1,200,000원
- 하 단 광 고 : 500,000원
- 하단 1/2 광고 : 300,000원
- 하단 1/3 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 / 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 금 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용협동조합 131-009-471898

2012년 나홀로 유럽여행기

김예루 학생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부푼 기대와 설렘을 갖고 7월 어느 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나의 여행지는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3개의 국가였다.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파리 라빌레트 공원 안에 있는 추미의 폴리들과 독일의 실용성을 바탕으로 하는 건물의 디자인이다. 라빌레트 공원을 갔을 때엔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펼쳐지고 있었다. 1920년대에 만들어졌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폴리의 상태들은 양호했다. 이 벤트싱 공간들이 아직도 아무 무리 없이 사용된다는 점이 놀라웠다. 현재 공존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과 시간을 거슬러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감동스러웠다.

하지만, 더욱더 놀랐던 것은 독일의 건물이었다. 벽체가 두껍고 개구부가 환기에 적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처럼 냉방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도 생활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어보였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다른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데에 있어 힘들겠지만, 디자인만을 추구하느라 정작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놓치진 않았는지에 대해 돌이켜 보아야 할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과연 값싸고, 예쁘고, 빠른 건축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러한 건물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이번 불라벤과 덴빈의 폭풍우를 보면서 우리의 건물엔 사족이 많다고 생각했다. 유리로 뒤덮힌 건물이며, 덕지덕지 달라붙은 간판들이 과연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건축학도로서 앞으로 건축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탐구해 보아야 할 듯싶다.

2012년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작품전 열려

- 지난 9월 6일, 공대 2호관 영명홀에서 개과 60주년 기념 졸업작품전 개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는 지난 한 해의 결실을 맞이하는 졸업작품전을 9월 6일부터 8일까지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 영명홀에서 개최했다. 9월 6일 열린 오프닝에서는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을 비롯한 내, 외빈 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건축학부 개과 60주년으로써 의미가 있는 작품전이 되었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김예루 학생기자
kimyeru@hanmail.net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전시회 개최

-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북대 신축박물관 1층에서...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전북대학교 신축박물관 1층에서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의 졸업전시회가 열린다. 9월 12일 오전 11시 개막을 알리는 리셉션 행사가 있을 예정이며 건축학과와 더불어 건축공학과 학생들의 졸업논문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전주시 도시재생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졸업설계의 목표는 '도시재생'이라는 주제에 대한 해석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다양한 방안의 제시와 그 건축적 실현이다. 반 학기가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준비한 이번 전시회에서 학생들 저마다의 해석을 토대로 설계한 작품들을 감상하며 그 차이와 가치를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두현정 학생기자 dhj-tlsgnk@hanmail.net

2012 광주 도시재생아이디어 공모전 1차 심사 발표

- 오는 9월 14일(금) 오후 3시 광주건축사회관에서 특선 8팀 2차심사에정

광주광역시와 주최하고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관한 2012 광주도시재생아이디어 공모전 1차 심사결과가 발표했다.

다음 8팀은 오는 9월 14일 오후 3시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2차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명	소속	작품명(한/영)
김도용	일 반	주민공동텃밭 Farmartment
정은지 김희연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다시 뿌리내리기 Re_Rooting
김종남 추권준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최소한의 공간을 통한 총장로의 흐름개선 Improve the flowof 총장로
송경석 탁 광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웰컴스트리트 well-community street
신상진 김지연	한빛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김효만 건축사사무소	소나기-소설속나의 이야기 / My story in the novel
주다영 박주영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이야기 꽃을 피우다. The conversation become animated.
윤초혜	일 반	하이힐링 / 하이-heiling
한아름 구영주	광주여자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길위에서(광주예술의 거리 활성화방안) On The Pathway

곽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l.com

전북대학교 설계 동아리 마지막 작업실 정리

두현정 학생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지난 8월 1일 전북대학교 건축설계 동아리의 마지막 작업실이 사라졌다.

N.A는 전북대학교 건축학과에 현존하는 세 개의 동아리 중 두 번째로 오래된 동아리이자 외부에 작업실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동아리였다. 외부 작업실은 10년 전 동아리의 창립멤버들이 지하공간에 터를 잡고, 바닥을 정리하고, 벽에는 직접 페인트칠을 하고, 책장과 책걸상 등을 구해와 마련했던 곳.

비록 일 년 내 내 습한 공기가 가득하고 빛 한줄기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지만 직접 꾸민 아지트에서 생활하던 추억이 기둥에 찍혀있는 선배들의 손도장처럼 선명하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타 동아리들도 모두 외부작업실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계 워크숍이나 건축물 답사 등 여러 가지 학술활동을 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학생들의 썬짓돈이 고스란히 월세로 빠져나가버려 재정난을 겪으면서 하나 둘 작업실을 없애고 학교 빈 강의실에서 간단한 회의를 진행해 오곤 했다.

학교에 공간을 마련하려 수없이 노력해봤지만 건축학과도 통폐합 되고, 강의실 수도 축소하는 실정이라 동아리에 지원될 공간은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부피를 차지하는 큰 짐은 버리고 책과 사용할 비품들만 리어카로 일일이 실어 날라 현재 사용 중인 설계실 한칸에 모아두었다. 이날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4학년 김지훈 학생은 "앞으로 동아리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막막하다. 학과 상황도 상황이니만큼 동아리의 활동 방향에 대한 고민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전했다.

개강 이후에는 매주 회의를 할 장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협소하더라도 다 같이 모여 앉을 수 있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음으로 사람을 짓다.

김태웅 학생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지난 6월 22일 호남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생들의 연합으로 1주일간의 농어촌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낯선 마을과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잘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걱정이 가득하였지만, 마음씨 좋은 마을분들과 학교는 다르지만 같은 뜻이 있는 학생들과 금세 친해질 수 있었다.

총 6개조로 나누어 한 조마다 한 집을 담당하여 공사에 착수하였다.

날은 덥고, 많이 노후된 집에서 곰팡이 냄새와 벌레들 그리고 쥐들까지 불편하게 했지만, 하루하루 지나 갈수록 숙달되는 실력과 완성되어가는 성과물에 성취감 또한 대단하였다. 인심 좋은 마을사람들의 감사의 인사를 듣고 할때면, 가슴속에 무언가가 따뜻하게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비록 건축물을 직접 설계하고 시공한 것은 아니지만, '마을분들에게 조금더 나은 환경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항상 접해있는 환경이 좋은 심리상태를 만들어 주리라'라고 생각하며 정성껏 봉사에 임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엔 내가 봉사활동을 한 마을보다 더 좋지 않은 시설물들이 많이 있으며, 아직도 방치되어 있을 거라고 느꼈다.

그렇기에 농어촌 집고쳐주기 봉사활동을 통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경험을 한 뒤로는 물질적으론 얻는 것은 없겠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경험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6월 29일 호남대학교 소강당에서는 전국 대학의 건축학과 또는 실내디자인학과 등등 많은 학생들이 모여 한국 농어촌건축학회에서 주관하는 "농어촌집 고쳐주기 운동" 발대식 행사를 가졌다. 봉사시간으로는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자세한 날짜는 명시되지 않으며 6월~9월까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건축학도들의 미래를 위한 여름나기

정세영 학생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방학동안 '원광대학교'는 설 새 없이 바빴다. 5학년들은 조만간 열릴 졸업 작품 전시회 때문에 5년간 배움을 토대로 준비한 자신의 작품 즉, 모형과 패널 그리고 그것을 봐줄 전시대 까지 꾸미느라 동분서주했고 취업을 한 학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각자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 같다. 2학년, 3학년,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은 '책'을 많이 보고 여행을 많이 다녀야 실력이 쌓인다는

학생들도 많았다고 한다. 외국으로 떠날 돈이 없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에서도 특색이 있는 지역으로 떠나 피서도 즐기고 그 지역의 유명 건축물 그리고 마을을 어떻게 계획하였는가를 보기도 했다.

또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을 나가 자신의 실력이 어떤가를 가늠하기도 하고 가까운 설계사무소, 건설회사, 인테리어 회사 등을 가서 포트폴리오 준비도 했다고 한다.

건축학과 교수님도 학생들에게 방학을 알차게 보내게 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했었다. 우리대학 건축학부 윤충열 교수께서는 방학 중 '농어촌집 고쳐주기'를 진행을 하여 여러 '독거노인'들에게 더욱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학생'에게는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고 고칠 수 있는지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의 풍족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느낌을 제공해 주었다.

박기우 교수께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작년에 'facebook'을 건축학과 학생들 전부터 가입하게 해 1년이 지난 지금도 학생들이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제 개강을 하고 우리 학부 학생들이 방학 중 개발한 각자의 능력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 활짝 펼치기를 바란다.

(주)이노탑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창호업체로서 고효율 및 친환경창호인
커튼월, 한옥창, 시스템창, 학교창 등 A/L
및 목재 창호를 개발하여 생산·시공하고
있으며 KS인증서, 고효율기자재인증서 및
다수의 특허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커튼월/고정창 더블스킨 ● 시스템창 / 학교창

● 스틸커튼월(노출/비노출) ● 한옥창(A/L / 목재)

자연의窓

이노탑
ISO9001 / F 3117 인증업체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49 (농공단지 내)
TEL: 061-373-6920 FAX: 061-375-6920
E-mail: inotop1@hanmail.net
홈페이지: www.inotop.co.kr

수면 위로 조금씩 떠오르는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 지난 9월 4일 광주서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진행경과 보고회 열려



한편, 이날 차기대회 개최 의사를 밝힌 경상북도건축사회의 전상훈 회장과 임원 7인 그리고 경북도청 관계 공무원 4인이 참관하기도 했다.

글로컬(Glocal) 아트페어 ‘아트광주12’ 폐막

－ 강운태 시장, 개막식서 “광주아트페어가 국내외 주목 받으며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어”



노성대 아트광주12공동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트광주12는 광주만의 차별화된 아트페어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광주시민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트광주의 성장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광주의 9월이 아트광주12와 함께 문화예술의 희망을 힘차게 시작했다"며 "미술의 본고장 광주에서 열리는 미술시장이 국내외의 주목을 받으며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아트광주12'은 작년에 이어 국내외 13개국 83개 갤러리와 4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되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동, 동남아시아 등의 갤러리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지금까지 유럽과 동북아시아에 한정되었던 해외참여갤러리를 확장하여 아시아미술시장을 소개했다.

광주 새 야구장 ‘무장애, 친환경적’ 건립된다

－ 광주시 지난 8월 무장애(BF) 예비인증 신청과 9월초 친환경 예비인증 신청



시는 최우수 등급 인증을 위한 휠체어석과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점석 등 247석을 장애인석으로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경기장 출입구에 근접 배치해 우천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인 등 이동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전층에 설치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비인증의 심사와 심의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며, 향후 야구장 준공 후 본 인증을 획득해 전국 최초로 야구경기장의 BF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 건립되는 야구경기장은 총 사업비 994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지상 5층, 2만 2102석 규모로 건립되며,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갖고 올해 2월 기존 무등경기장 축구장 철거를 완료했다. 올해 12월말까지 구조물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말에는 공사를 마무리 해 2014년 프로야구 시즌부터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의 야구팬들에게 새 야구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제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10월 25일 개최

－ 오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려



광주광역시와 주최하고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제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오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광주시, 도시건축물 등 변천 연혁 한눈에 본다.

－ 올해 말까지 항공사진 판독현황도 전산화 추진 완료

광주광역시는 도시건축물 등에 대한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최신 판독기술에 의한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 개발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변천(연혁)관리·항공사진 판독현황도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그동안 판독현황도가 전산화 되어 있지 않아 항공사진 촬영후 수작업 판독에 의존한 것을 최신기술에 의한 디지털 판독이 가능토록 항공사진판독 판독현황도를 전산화하는 사업이다.

2년에 걸쳐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판독현황도 1,330장(시 전체 2,667장)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시비 2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잔여지역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여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 선진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항공사진촬영 등을 추진해 각종 토지정책 및 도시발전계획을 마련함은 물론 토지보상업무 수행 등 행정전반에 활용함으로써 행정효율을 증진하는데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도 건축물 등 변동 사항 2,076건을 적출 한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앞으로 실세계를 반영한 축적된 항공사진 촬영자료를 각종 웹서비스를 통해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디지털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 광주폴리 틸새호텔 작품 체험(숙박) 희망자 공개모집

－ 9월 20일까지 2012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누구나 응모가능

2012광주폴리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서도호 작가의 틸새호텔 작품 체험(숙박)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한다.

1.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12 광주폴리 틸새호텔 작품 체험 희망자 공개모집
- 모집인원 : ○○명
- 공모기간 : 2012. 9. 7~9. 20(14일간)
- 응모자격 : 2012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 누구나

2. 공모일정

- 공모접수 : 2012년 9월 6일 ~ 2012년 9월 20일
- 체험일정 : 2012. 10~11월
- 선정자발표 : 2012년 9월 25일(발표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서류작성 및 접수방법

- 서류작성 및 방법
- － 서 식 : 재단이 제공한 서식(공고문 하단 다운로드 서식) 사용
- 접 수
- －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및 온라인(gjfolly@gwangjubennale.org) 접수
- － 기 간 : 2012년 9월 7일~9월 20일
- － 직접접수 방법 : (재)광주비엔날레 또는 틸새호텔 전시 장소

4. 선정 및 체험일정

- 선정방법 : 심사선정 - 신청자의 신청 동기, 신청자 소개 등의 글을 기준으로 심사
- 체험일정 : 2012. 10~11월중 - 선정자와 개별적으로 체험일정 협의
- 선정자 공고 : 비엔날레 홈페이지 또는 이동전화 문자 통지

5. 유의사항

- 선정자는 작가와 비엔날레가 제시하는 소정양식의 설명서 및 주의사항에 서명을 요구할 경우 서명하여야 합니다.
- 틸새호텔은 1인실로 1인 1회 1박을 기준으로 체험을 제공합니다.
- 틸새호텔은 작가가 만든 작품으로 이용시 훼손해서는 안되며, 훼손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무료 행사이며, 체험 일정은 선정자와 협의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본 체험 행사는 작가 측의 요구에 따라 이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첨부한 “틸새호텔 안내 자료”는 실제 상황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부 (062-608-4261 ~62)

2012대한민국건축사대회 주요 프로그램 안내



▶ 선포식 / 환영만찬

- － 일 시 : 2012. 10. 25(목) 19:00~20:30
- － 장 소 : 홀리데이인 호텔
- － 행사내용 : 2012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 선포 및 행사관련 기자회견

▶ 입장식

- － 일 시 : 2012. 10. 26(금) 14:00~14:20
-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1,2전시관 특설무대
- － 주요 프로그램

전국 16개 건축사회 입장식, 대회임원 및 초청

VP 입장식

▶ 건축비전 선언문 선포식

- － 일 시 : 2012. 10. 26(금) 14:50~14:56
-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1,2전시관 특설무대
- － 주요프로그램

건축비전 선언문 선포 / 특효 이벤트

▶ 심포지엄 / 세미나

- － 일 시 : 2012. 10. 26(금) 10:00~12:00
-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 건축사의 가족 합창제 예선 및 본선

- － 일 시 : 2012. 10. 25(목) 14:00~17:00
-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 ※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상금 및 트로피)

▶ 2012 광주 건축·도시문화제

- － 일 시 : 2012. 10. 25(목) ~ 28(일)
-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콘코스를
- － 주요 프로그램

해외 건축전, 광주 건축상 수상작 전시회 등 다수

광 주·전남건축물투어

- － 일 시 : 2012. 10. 25(목) 14:00~17:00
- － 장 소 : 광주·전남 일원
- － 투어코스 소개

- ①가사문학관 : 소재원, 식영정, 한벽당, 가사문학관
- ②무등산권 : 의재미술관, 우재김미술관, 광주전통문화관, 증심사
- ③기독교문화역사관 : 선교사택, 오원기념각, Bell 기념관, 사직
- － 폴리
- ④아시아문화전당권 : 아시아문화전당(현장 방문), 어반 폴리
- ⑤2012 광주비엔날레

▶ 축제 한마당 / 경품추첨

- － 일 시 : 2012. 10. 26(금) 15:23~17:00
-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1,2전시관 특설무대
- － 주요프로그램

시·도회별 개별 행운권 추첨함 운영 축하공연

▶ 한국건축산업대전 2012

- － 일 시 : 2012. 10. 23(화) ~ 26(금)
- － 장 소 : 코엑스 1층 A, C홀
- － 주요 프로그램

프로젝트전시관 : 건축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이 공동 전시관

구성

건축자재전시관 : 우수건축자재 및 건설장비, 조명, 신재

생애나치, IT 등

국토개발홍보관 : 국가정책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홍보관 구성

테마 기획전 : 전문분야별 주제설정에 맞는 전시관 구성

기 타 :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전, 대한건축사미술전

▶ 기타 부대행사

- － 빛고를 “맛” 체험존 운영
- － 지역 특산물 업체 참여를 통해 다양한 “맛” 거리 형성
-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여성회원 협의회 불우이웃돕기 사랑
- 의 커피 판매점 운영

전라남도 장흥지역건축사회, 장흥군에 수재의연금 전달

－태풍으로 피해 입은 군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원 기탁



전라남도 장흥지역건축사회가 장흥군에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탁했다. 장흥지역건축사회는 가산 건축사사무소(정기호 건축사) 등 장흥군 관내 건축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해왔다.

국제농업박람회 전라남도 나주시 오는 10월 5일 개막

－나주시 산포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25개국 417개 기업·기관 참여



친환경 농·특산물과 유기농업 분야의 신기술,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을 만나볼 수 있는 대규모 국제 농업박람회가 전남 나주에서 열린다.

국제농업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5일부터 25일간 전남 나주시 산포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국제농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녹색 미래를 여는 생명의 세계’를 주제로 한 이번 국제농업박람회에는 25개국 417개 기업·기관이 참

여한다. 이번 박람회는 전남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는 주제전시관으로 생명농업관과 농업미래관이 개설되고 농업예술관·유기농업관·산업곤충관·친환경축산관·농기자재전시판매관 등 모두 9개 전시관이 운영된다.

조직위 측은 다 자라면 높이가 5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키 큰 벼와 10만개 누에고치로 만든 대형 누에를 박람회의 랜드마크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 밖에 비즈니스 박람회를 목표로 농·특산물 670억 원 어치를 구매약정하고 해외 바이어와의 2차례 수출상담회를 통해 2300만 달러(약 261억 원) 수출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3차례의 국내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을 통해서도 1000억 원의 구매약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시청 건축과 박준걸 팀장, 건축구조 공학박사 학위 취득으로 화제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조 문화재의 구조적 보강 특성에 관한 연구’로

여수시청 건축과 박준걸 건축행정팀장(이하 박팀장)은 최근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조 문화재의 구조적 보강 특성에 관한 연구’로 건축구조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박 팀장은 지난 2005년 문화재 담당업무를 수행할 때 목조와 석조로 건조된 우리나라 건조물 문화재 구조안전에 대한 이해와 구조전문가가 거의 없음을 인식하고 연구에 몰두했다.

그는 논문에서 석조문화재가 외부 환경에 수백 년 동안 노출돼 석재의 풍화현상, 석재 적층의 불합리·불균등에 의해 균열과 변형이 발생했을 때, 신석재로 교체하면 역사적 가치가 상실되는 국가 지정 석조문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조적 보강방법’을 규명했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도시 여수, 남해양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

－지난 9월 5일 정부지원위서 특별법 따른 비영리재단 설립 등 사후 활용계획 확정



세계박람회의 도시 여수가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해양리조트 조성 및 남해안 선벨트 등과 연계한 남해안 해양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된다.

지난 9월 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조직위원장, 국토부장관 등 각부 장관, 전남지사, 여수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지원위원회가 열려 이같은 내용의 사후 활용계획이 확정됐다.

이날 위원회는 조직위원장의 여수박람회 성과와 평가 보고회에 이어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안)을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했다. 또한 사후관리의 지속적 정부 관심과 지원을 위해 현재의 지원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정부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계속 개최하기로 하였다. 심의, 의결된 사후활용계획의 기본방향은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 해양리조트 조성 및 남해안 선벨트 등과 연계해 남해안 해양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 주도의 창의적 개발을 기반으로 추진하되 정부의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빅오(BIG-O), 아쿠아리움 등 핵심 콘텐츠를 활용해 박람회의 유산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사후 활용 기구는 올 12월까지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하되 그 이전까지는 조직위원회가 정부 출연금, 부지 임대료, 시설물 운영수입, 광고, 박람회 수입사업 등으로 운영된다. 선 투자금 4,846억 원은 2013~2014년까지 2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되 매각이 지연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등 별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날 심의된 사후 활용 계획과 관련 “여수를 중심으로 하는 남해안권 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성장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바다와 연계한 해양테저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요트 구입에서부터 운영수리까지 산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폭적인 투자와 세제 지원 등을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한 “만세정 운영, 씨푸드타운과 해양관광리조트 조성 등을 위해 정부주도의 사후관리 재단법인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박람회가 끝났다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다”며 전남도와 여수시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순천정원박람회 랜드 마크 ‘꿈의 다리’ 장식할 그림 수집

－오는 10월말까지 초등학교 이하 국내외 어린이 대상으로 그림 16만점 수집



전라남도 순천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랜드 마크가 될 ‘꿈의 다리’ 내벽을 장식할 그림 16만점을 오는 10월말까지 수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꿈을 그려보세요! 2013년 봄, 여러분의 꿈이 펼쳐집니다’라는 주제로 초등학교 이하 국내외 어린이를 대상으로 16만점의 그림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그림은 지정된 크기인 7.62cm×7.62cm의 종이에 크레파스나 색연필로 그려서 정원박람회지원과(061)749-4448로 제출하면 된다.

‘꿈의 다리’는 뉴욕에서 활동 중인 설치미술가 강익중이 설계한 작품으로 외벽은 강익중 선생의 한글작품이 장식되며 내벽은 어린이가 직접 그린 16만장의 그림으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꿈의 다리는 순천 동천을 가로질러 주박람회장과 국제습지센터를 연결하는 다리의 기능과 미술관의 역할도 함께하는 소통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군산시, 건축물 등 특정관리대상 878곳 안전점검

－오는 11월 30일까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전라북도 군산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및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돼 관리 중인 878개 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와 함께 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교량·육교·석축 등의 시설물과 아파트 및 연립주택, 대형공사장, 다중이용시설물 등 건축물이다. 특히 신규관리대상시설물이 이번 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부서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총괄부서인 재난관리과에서 취합·관리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즉시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조치하고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해선 사용제한 및 금지·대피명령 등의 응급조치를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전북 익산시 익산시립부송도서관, 건축 우수 공공도서관 선정

－문화부와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에서 선정한 건축 우수 공공도서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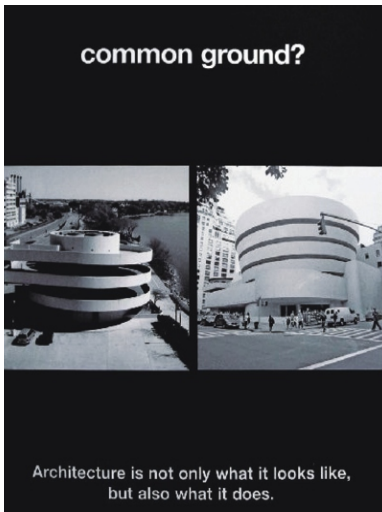
익산시립부송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에서 선정한 건축 우수 공공도서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2012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으로 1·2차에 걸친 조직 및 운영 관리, 건물 도면, 건축 개요 등 엄격한 심사로 이뤄졌다.

부송도서관은 전국 25개 공공도서관과 함께 건축 우수 공공도서관으로 선정됐다. 부송도서관은 연면적 3,743㎡의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지난 4월 개관했다.

2012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개막하다

－오는 11월 25일까지 진행, 일본이 국가별 참가전의 황금사자상 수상



지난 8월 29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막한 2012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이 오는 11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세계 3대 비엔날레 중 하나로 손꼽히는 베니스 비엔날레는 1895년 시작되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1995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비엔날레에 국가관을 가지고 있으며,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은 1980년 미술전으로부터 분리되어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최고 권위의 국제 건축전시회다.

이번 한국관 전시 주제는 국제전의 공동타이틀인 ‘Common Ground’라는 메인 주제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시대적 공감과 건축의 공동성 및 사회성을 주축으로 하는 건축의 시간성, 공간성 및 사유의 의미가 확장되고 재인식 될 수 있는 ‘Walk in Architecture (건축을 걷다)’로 구성했으며 국내 유명건축 대표가 참여해 8개의 시나리오로 영상 중심의 건축다큐

를 전시하고 있다.

한편, 개막식에서 일본이 국가별참가전의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는데 일본관은 건축가 이토 도요오의 기획으로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새로운 건축의 가능성을 모색한 전시를 소개했다. 일본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건축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1996년 고베 대지진 이래 두 번째다.

News광주 건축사회 동정

- * 전임
 - 김봉성 건축사 / 비에스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운천로 92번길 1-0 (3층)
 - 서남열 건축사 / 신원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80M타워 8층 801호
 - 박강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한울
광주 동구 서석동 19-9번지 2층
- * 변경(사무소명, 소재지 변경)
 - 마재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림
광주 서구 상무대로 899-1
명지맨션상가 2층 201호
- * 변경(소재지 변경)
 - 윤정태 건축사 / 하나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무등로 204
 - 박강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한울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42번길 49, 301호
 - 강동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라움
광주 남구 대남대로 282 3층
- * 결혼
 - 주형신 건축사 / 삼정 건축사사무소
9월 22일 (토) 15:00,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3층 거문고 A / 장남 혼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119호

201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험장소 공고

「건축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험장시 및 시험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정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1. 시험일자 및 시간

시 험 일 자	시 험 과 목		
	대지계획	건축설계1	건축설계 2
2012. 9. 16(일)	09:00~12:00 (180분)	13:00~16:00 (180분)	16:30~19:30 (180분)

2. 시험장소

구분	시험장	응시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교통편
서울	제1시험장	00002~00562	잠신고등학교	서울 송파구 잠실로	지하철 2호선 신천역 7번출구 도보 10분
	제2시험장	00563~00941	광진중학교	서울 광진구 독성로	지하철 2호선 광변역 4번출구 도보 15분
	제3시험장	00942~01466	잠실중학교	서울 송파구 신천로	지하철 2호선 잠실역 7번출구 도보 15분
	제4시험장	01467~02196	잠실고등학교	서울 송파구 신천로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 1번출구 도보 10분
	제5시험장	02197~02846	명일중학교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지하철 5호선 고덕역 1번출구 도보 15분
	제6시험장	02849~03000 05004~05996 06009~06995 07007~07496 07523	송파중학교	서울 송파구 동남길	지하철 5호선 개롱역 4번출구 도보 15분
	제7시험장	07531~08484 08521~08975 09003~09999	문현중학교	서울 송파구 충민로	지하철 8호선 정지역 1번출구 도보 10분
부산권	부산시험장	10002~19948	부산전지공업고등학교	부산 동래구 금강로	지하철 1호선 명륜동역 3번출구 도보 15분
대구권	대구시험장	20005~29991	대구공업고등학교	대구 동구 대현로	시내에서 버스승차 156, 305, 401, 403, 414 521, 618, 650, 708번
광주권	광주시험장	30003~39517	광주전지공업고등학교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시내에서 버스승차 09, 16, 27, 29, 30번
대전권	대전시험장	40001~49807	대전법동중학교	대전 대덕구 수련원길	시내에서 버스승차 60, 63, 302, 317, 616번

광주·전남·전북지역 9월 지역 축제 안내

- ▶ 09. 13 (목) ~ 09. 17 (월)까지 2012 전주세계소리축제 -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 ▶ 09. 14 (금) ~ 09. 16 (일)까지 제8회 보성전여축제 - 전남 보성군 울포해수욕장
- ▶ 09. 14 (금) ~ 09. 17 (월)까지 제20회 임방울 국악제 - 광주 북구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 09. 15 (토) ~ 09. 23 (일)까지 제9회 고창메밀꽃잔치 - 전북 고창군 보리나라 학원농장
- ▶ 09. 20 (목) ~ 09. 23 (일)까지 2012 익산 서동축제 - 전북 익산시 중앙체육공원
- ▶ 09. 21 (금) ~ 09. 23 (일)까지 제12회 불갑산 상사화축제 - 전남 영광군 불갑사 관광지구
- ▶ 09. 21 (금) ~ 09. 23 (일)까지 2012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전남 장수군 의암공원
- ▶ 09. 22 (토) ~ 09. 22 (토)까지 제5회 선운문화제 - 전북 고창군 선운사
- ▶ 09. 22 (토) ~ 09. 23 (일)까지 2012 꽃무릇큰잔치 - 전남 함평군 용천사 꽃무릇공원
- ▶ 09. 22 (토) ~ 09. 22 (토)까지 제15회 피향정 문화축제 - 전북 정읍시 피향정, 태인동헌 등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 부고

- 손권옥 건축사 / 목우 건축사사무소
8월 26일 (일) / 부친
- 이재운 건축사 / 영조 건축사사무소
8월 26일 (일) / 빙부상

News전남 건축사회 동정

* 입회

- 이형호 건축사 / 삼정 건축사사무소
전남 나주시 중앙동 64 - 8 (4층)
- 이수진 건축사 / 미래 건축사사무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 99

* 광양지역건축사회 창립식 개최

- 일 시 : 2012. 9. 6 (목)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필레모관광호텔”

News전북 건축사회 동정

* 부고

- 허철 건축사 / 호남 건축사사무소
8월 15일(수) / 부친(허만 전화원)상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감리자가 감리기간동안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체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감리자의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감리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명문화 및 보험 가입비용을 감리 용역비용에 계상(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제24조제9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령 제500호)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손해배상책임)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감리용역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그 손해를 계약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신 설)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 ----- ----- ----- ----- ② 감리자는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 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방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기준을 신용평가방식으로 변경함(안 부표 제2호가목의 (1))
나. 감리업무 수행실적 평가기준을 최근 3년 이내 수주실적에서 최근 3년간 감리를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으로 변경하고 배정기준을 세분화(안 부표 제2호가목의 (2))
다. 사업주체가 행하는 감리자의 감리 업무수행결과 총평을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등급간 배정차이를 조정함(안 부표 2 가. (8) 가점, 별지제8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제24조,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 1 ~ 12 (생 략) 3. “건설사업관리업무(이하“건설관리(CM)업무”라 한다.)”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 12 (생 략) 13. -----제2조제8호----- -----
제5조(감리자 모집공고)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전체 건설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통비용 및 자기자본비율 9. ~ ⑩ (생 략)	제5조(감리자 모집공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7. (현행과 같음) 8. (삭 제) 9. ~ ⑩ (현행과 같음)
제10조(감리자의 지정) ① 감리자지정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제10조(감리자의 지정) ① ----- ----- ----- ----- 1. 제8조의 ----- -----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 ----- ----- ----- 2015년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주택성능등급(주택법)과 친환경건축물(건축법) 세부평가항목의 통합을 위해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이 개정 시행(12.7.1)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항목명칭, 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정신청서 양식 및 배점기준 조정(별지 1호서식, 제2호서식 및 별표1)
나. 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용 기준 변경(별표 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 행 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 행 인 심상봉, 윤문곤, 이성엽
편 집 인 서재형
전 담 기 자 박승국
편집위원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박상윤, 전경훈, 박중호,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원일인쇄 T.062)228-7813
광고신청 T.062)521-0025



표 | 지 | 설 | 명

2012광주비엔날레

6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2012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진행을 기원하며, 건축계 또한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바란다.

건축문화



신분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 후원방식 : 신탁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문형록 | 반석기초이앤씨(주) 1,000,000만원
장 철 | 동일교역(주) 1,000,000만원
(주)유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000,000만원
(주)길 건축사사무소 500,000만원

건축문화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i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바다를 닮은 친구에게

이광영 건축사
리가 건축사사무소

안녕! 보고 싶은 친구야
오랜만에 소식 전하는구나. 몇 년 전까지 가끔 편지 주고받았었는데... 예쁜 편지지가 주는 감동, 봉투를 뜯을 때의 설렘,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예쁘고 정이 느껴지는 글씨체들, 세상은 분명 편리하게 변해가지만 절대적인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는가 봐.
20년 만에 찾아온 더위, 우리 모두를 참 힘들게 했던 그 무더위도 태풍이 함께 휘몰고 간 것일까? 아침, 저녁으로 피부에 느껴지는 기운이 조금은 쌀쌀해지고 어느새 여름의 흔적은 소리 없이 사라져 가고 있구나.
여름내 지치고 이완되어 있는 나의 몸과 마음은 한줄기 가을바람의 기운으로 기분 좋은 긴장감을 느껴며 하나하나 깨어나는 느낌이다. 넌 부모님, 그리고 늦둥이 아들에게 함께 하느라 더 힘들었겠지? 늦둥이 아들의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말이야, 큰엄마가 아닌 엄마로 보여 지기를 소망하며....
친구야!
오늘 아침 몇 장 남지 않는 달력을 넘기며 세월의 흐름을 나이 숫자만큼의 속도로 비유한 말이 생각이 났어. 나이 40이면 40km, 50이면 50km의 속도로 세월이 흐른다는 말, 정말이지 기막히게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 우리 인생을 일직선상에 표현해 보면 우린 이미 절반을 지나서 가고 있겠지. 몇 년 뒤에는 평균수명이 100세가 된다고 하니 어떨지는 모르지만...
친구야!
언젠가 우리 나이 먹는다는 것에 대해 얘기했었지. 우린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 인자해 보이는 할머니를 보고 저런 얼굴을 갖고 싶다고도 했었잖아. 나이 드는 일, 젊음을 떠나보내는 일,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 도 없는 일이겠지. 부럽기 그지없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우면 지는 거야'라고 말하며 지금 우리의 시간을 즐겨보자고, 그리고 그 자리에 채워 넣을 뭔가를 찾으면서 생활하자고 했었지.
친구야!
너 그거 아니? 넌 늘 나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나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게 하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그런 친구가 있어서 난 늘 마음 든든하다는 거. 같은 나이 이면서도 넌 항상 나보다 어른스러웠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친구였어, 그래서 네 주변엔 늘 사람들이 많았지. 너의 그런 모습 뒤에는 늘 마음 수련과 스스로 수행하는 노력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
가을이 왔어. 온 산과 들은 수확의 기쁨으로 넘치고, 하늘은 높아만 가고, 우린 살찔까? 은행잎이 노랗게 피어나면 우리 만나자.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에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한적한 시골길을 너와 함께 거니는 행복한 시간을 꿈꾸며...
친구야 안녕...

가을소망

정영천 대표
(주)은혜

저 청명한 파란 하늘에 손이라도 뻗어

내 마음도 그렇게 파래 질 수 있다면

저 붉게 물든 단풍잎에 옷깃이라도 스치어

내 마음도 같은색의 아름다움을 뽐내 낼 수 있다면

저 맑게 흐르는 계곡물에 발이라도 담그어

내 마음도 수정처럼 맑아 모든걸 투사할 수 있다면

저 웅장하고 근엄한 사찰에 몸이라도 옮기어

내 마음도 그렇게나 크고 넓어 질수 있다면



「스님의 주례사」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딸아, 결혼한다면 이 책만큼은 읽고 가라!
어머니가 딸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랑과 연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책! 이웃과 세상에 보탬이 되는 보살의 삶을 서원하면서 '정토회'를 설립한

스님의 『스님의 주례사』.
인간성 상실이 일탈을 넘어서는 현대인을 위해 '즉문즉설(卽問卽說)'로 대안적 삶을 이야기해온 법륜스님이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축복 같은 조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뿐 아니라, 사랑과 연애를 위한 지혜조차 얻게 되지요. 특히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속박하지 않으려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같이 살아도 귀찮지 않을 때 결혼을 해야 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에게 베풀어주겠다는 마음이 아닌, 덕을 보겠다는 마음을 품고서 결혼을 선택한다면 불행까지 얻게 됨

법륜지음/김점선그림/한겨레출판/2010. 9. 13

을 이책에서 강조하고 있지요. 좋은 책이란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살아가는 길에 양념을 술술 뿌려주는 것같은 마음을 새기게 해주는 것 말이지요. 저는 결혼 후, 얼마나 준비없이 결혼을 했는지를 느끼곤 했습니다.
배우자로도, 부모로도, 준비가 필요함을 늘 느끼며 살았지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때 부족했던 마음들을 스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느끼면서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더 현명하고 지혜로웠겠구나 아까워했습니다.
아내들은 돈만 생각한다고 답하는 남편들,그러나 아내들은 말합니다.
'존중'이라고! 자기자신에 대한 존중 말이지요. 서로 베풀겠다고 생각하면 부드러운 인연이, 자신만의 욕심으로 인해 끊임없이 불행 속에 지낸다는 법륜스님의 축복같은 조언들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남이 아닌, 나를 변화 시키는 삶.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삶, 남탓하지 말며 미워하지 않는 삶, 사랑으로 아름답게 껴안는 마음, 참 말처럼 쉽지 않으나, 분명 행복으로 가는 길을 새겨들으며 조금씩 내 자신을 위로하고 정갈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나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다스리면서 나쁜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이 책을 올 가을 여러분에게 권해봅니다.

곽성숙 작가
시수필집 '차꽃, 바람나다'

저자 법륜/저서(총 55권)

1953년 4월 11일 울산 출생. 현대인들의 공허함과 인간성 상실의 일탈을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즉문즉설(卽問卽說)'을 통해 대안적인 삶을 이야기해온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전파하라는 의미를 지닌 법명 '법륜(法輪)'처럼, 법륜스님은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실현해가는 평화운동가이자, 제3세계를 지원하는 활동가이며, 인류의 문명전환을 실현해가는 전 지구적 책임 의식을 가진 사상가이자, 깨어 있는 수행자이다.
법륜스님은 1988년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 이웃과 세상에 보탬이 되는 보살의 삶을 서원으로 한 '정토회(www.jungto.org)'를 설립했다.
정토회에서 정토 수행자들의 수행을 지도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만해상 포교상을, 2002년에는 아시아의 노벨 평화상이라 불리는 라몬 막사이사이상(평화와 국제이해 부문)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실천적 불교 사상',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금강경 이야기', '반야심경 이야기', '붓다, 나를 흔들다' 즉문즉설 시리즈 '답답하면 물어라',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행복하기 행복전하기' 등이 있다.



추월산의 봄
가을을 만드려는 움트임
달빛 기다림의 침묵
추월산의 봄나래
속삭임 속에 명산은 연초록



도산서원의 농운정사 마루에서

도산서원은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1574년(선조7)에 지어진 서원으로 경북 안동시 도산면(陶山面) 토계리(土溪里)에 위치하고 있다. 서원의 건축물들은 전체적으로 간결, 검소하게 꾸며졌으며 퇴계의 품격과 학문을 공부하는 선비의 자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사진은 농운정사 마루에서 바라본 전경으로 농운정사는 제자들이 기거하여 학문을 하던 곳이다.

프리캐스트 판넬을 이용한 지중연속벽 공법 **JTPC WALL**



지하 구조물, 이젠 바뀔때입니다

혁신적 지중 연속벽 공법 - PC WALL

친환경 공법 · 공사기간 단축 · 안전성 우수 · 높은 경제성



고밀도 지반보강 **GEOCON 공법**



빠른시공, 무소음, 무진동, 비배토공법 **ROTARY PILE**



신축, 증축, 리노베이션, 기초보강 **MICRO PILE**



중·저층 건물 지반보강 **팡이기초**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아직도 어떠한 자재를 쓸 것인가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건축 내외장재 선도업체 **동일교역**이 해결하겠습니다.



주력제품 : LW PANEL, 라미네이트 패널

◆ 특징

-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친환경 자재
 - 자외선에 강한 내구성
 - 높은 내한 보온성
- 경량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빠르다
 - 원목에 가까운 질감
 - 난연재로 화재에 안전

LW PANEL 규격 : 1300 × 3050 × 6T



시공사례사진



주력제품 : FBD PANEL

◆ 특징

- 반영구적인 내구성, 내오염성, 내후성
 - A급 불연자재이며 유독가스 방출이 없다
 - 수분 흡수율이 낮아 자재의 변형 및 변질 없음
- 경량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빠르다
 - 해안 및 오염지역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리모델링시 타업체 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

FBD PANEL 규격 : 1200 × 2400 × 8T



시공사례사진



기타생산제품 : 인도사암(Sandstone), 라임스톤(Limestone), 대리석/화강석



항상 동일교역을 성원해 주신 고객 및 협력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사. 물류센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5번지
Tel. 062-361-6243, 061-382-0681
Fax. 061-383-6248

서울사무소 : Tel. 02-576-5234

건축문화 **시론**

Vol.034 10, SEPTEMBER 2012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시론** 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시론' 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2.09

034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2012 광주비엔날레 전시작품 中



잊혀진 공간, 2010-알란 세쿨라와 노엘 버치



한국에서의 행위, 2012-모니카 나도르



제바디아 앨링톤의 발라드-로이스 응,
제바디아 앨링톤, 고수희, 소이치로 미츠야의 협력



수입-수출, 2012-폰타위삭 림씨쿨

인터뷰_ 사람 & issue

전남 / (주)유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양병범 건축사



인터뷰_螢窓雪案

전북 /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윤충열 교수



SEPTEMBER 7 - NOVEMBER 11, 2012

GWANGJU BIENNALE HALL AND SELECT LOCATIONS IN GWANGJU

2012년 9월 7일 - 11월 11일, 66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 광주시내일원

주최: (주)광주비엔날레, 광주광역시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환경인프라, 지역경제부, 국토해양부

2012. 9. 7_11. 11

라운드테이블_제9회 2012 광주비엔날레

설계 감리제도 개선을 지켜보며

이성엽 회장_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시론 02

설계 감리제도 개선을 지켜보며 _ 이성엽

설계경기 03

사직공원 전망타워 등 설치사업 건축설계공모

특별기획 04-05

제9회 2012 광주비엔날레 "라운드테이블" / 6인의 공동예술감독소개

서양건축 06

영국 런던의 건축문화 1부 _ 김경원

사람 & issue 07

건물이 건축이 되고... 건축이 건물이 되다 _ 양병범

지역건축문화 08

새로 보는 전남의 건축문화 5부 / "—"형 재실, 외로운 "정려각" _ 김지민

螢窓雪案 09

농어촌 재능기부 선도자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_ 윤충열



사직공원 전망타워 등 설치사업 건축설계 공모